

대법원 판례 무시한 1심 판결 ‘헛점 투성이’

순천지원 ‘조계종선암사 말소’ 판결 ‘통합종단으로 등록’ 자료 등 무시 주지 법원스님 “항소해 바로 잡겠다”

태고종이 40여년 간 점유해왔던 순천 선암사의 등기에서 조계종 명의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똑같은 서울 봉원사 소송에서 조계종 승소를 결정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는 태고종 선암사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1971년과 1972년 조계종 선암사 등기번호를 1971년과 1972년 조계종 선암사 등기번호로 인정하고 8월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합종단으로서 조계종이 창설될 당시 선암사의 주지인 이지우와 그 재적승려들

이 통합종단 소속의 승려가 되기로 함과 동시에 선암사를 그 종단 소속으로 하기로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선암사 재적승려 전원이 통합종단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조계종단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근현대사의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판결이자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인정해온 대법원의 수많은 판례에 어긋난 ‘헛점 투성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근거로 ‘선암사 대중의 결의’를 들었다. 태고종 측의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도 조계종 측의 증거자료는 무시했다. 조계종 측 변호를 맡은 김봉석 변호사(금상 법률사무소)는 “태고종 선암사는 1962년 당시 선암사 재적 승려 전원이 통합종단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출된 증거자료에 이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한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

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조계종 선암사는 1962년 선암사가 조계종 통합종단으로 등록했다는 문교부 등록문건과 1965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조계종 사찰임을 확인하는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도 판결문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봉원사 소유토지 소송에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도 이번 재판부는 무시했다. 봉원사 소송은 선암사와 똑같은 사례의 소송이었다. 대법원은 조계종의 지속적인 주지 임명, 대처측에 대한 퇴거 요구 등을 들어 태고종의 점유가 불법적임을 확인하고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래로부터 전승된 사찰의 정통성과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태고종측에 일부 승소를 결정한 이번 1심 판결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은 “조계종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해온 대법원의 수많

은 판례를 무시하고 내려진 1심 판결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2011년 순천시로부터 선암사 관리권을 이양 받을 당시 조계종과 태고종간 첫 번째 합의조건이 화합과 협력이었는데도, 태고종 선암사는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윤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고종은 보도자료 통해 “순천지원은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잇고 그 재산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찰은 대처 측인 태고종 선암사이지, 비구 측인 조계종 선암사는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승계한 점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라는 점 및 등기부상으로도 그 소유 명의를 도로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총본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증흥을 위한 조계종총본산 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 총무원 일대에 장엄하는 여법한 불사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기도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금 모연명단

(2016년 7월 6일~2016년 7월 19일)

□기금 :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우송스님) 1억원 △남해 보리암(주지 능원스님) 5000만원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영관스님) 5000만원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성우스님) 2000만원 △서울 수곡사(주지 호산스님) 1500만원 △예산 수덕사 견성암 묘각당 정화명사 1000만원 △서울 승가사(주지 정호스님) 1000만원 △강진 무위사(주지 법정스님) 300만원 △황영속 300만원 △서울 청룡암(주지 상운스님) 200만원 △부산 전법사(주지 철은스님) 200만원 △이승남 110만원 △도문스님 100만원 △대전 덕림사(주지 원일스님) 100만원 △김성욱 30만원 △김종우 20만원 △김진고 10만원 △김건위 10만원 △신보은 5만원 △서울 갈로사(주지 현수스님) 5만원 △서울 호국지장사(주지 도호스님) 5만원 △김현자 3만원 △이충규 2만5000원 △박선숙 2만원 △김연우 1만원 △황유지 5000원 △신성일 5000원. (총 2억 6909만5000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 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자비선·행복창조캠프 ‘인성교육’에 활용된다

종단인증 프로그램 심의 통과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4일 인성교육개발인 중위위원회(위원장 혜거스님) 제5차 회의를 열고 ‘관계를 열어주는 감정조절 명상-자비선’과 ‘행복창조 캠프’를 종단 인증 인성교육개발프로그램으로 심의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자비선과 행복창조 캠프 프로그램은 수정보완을 거친 뒤 포교원회의를 통해 종단 인증 인성교육개발프로그램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전국 각지에 보급돼 인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본격, 활용된다.

성주 자비선사(주지 지운스님)가 개발한 ‘관계를 열어주는 감정조절 명상-자비선’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내적갈등의 원인이 대부분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됨을 짚어낸 뒤, 감정의 발생구조와 원리, 감정을 처리하고 대면하는 방법, 명상으로 감정적 관계를 바꾸는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찰용 숙박프로그램과 외부강의실용 통근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자비수관(좌선명상), 자비자선(자명상), 자비경선(경기명상), 명상코칭 등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행복선원(선원장 월호스님)이 만든 ‘행복창조캠프’는 ‘리셋 7단계’와 ‘행복창조 12선(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견하고 발휘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행복창조캠프는 ‘자나무 숲명상-리셋 7단계’와 ‘행복창조 12선(選) 스토리텔링’, ‘자애명상’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윤기종 단장을 비롯한 조계종 포교사단 대표단이 지난 21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총본산성역화 불사 기금 2000만원을 전했다.

“성역화 불사에 보탬 되길” 포교사단, 2000만원 전달

부처님 법을 전하는 조계종 포교사단이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아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 써달라며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2000만원을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울산지역 등에서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온 포교사들을 반갑게 맞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이 십시일반 모여 불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성역화 불사에 동참하기 위해 먼 길 올린 포교사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앞으로 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2016 조계종 예비종무원 양성과정 개설

8월23~26일 한국문화연수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오는 8월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6년 총무행정학교 ‘예비종무원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기본소양과정은 △불교 읽고 명쾌한 이해, 사찰기본예절 △조계종의 이해와 비전 △근현대 조계종사 △선체행프로그램 △총무원의 가치와 행복 △사찰문화의 이해 등으로, 직무역량향상 과정은 △공문서 작성의 이해 △템플스테이의 이해 △사찰총무행정프로그램의 이해 △비즈니스 매너교육 △사찰총무원의 이해(사찰답사) △모범형 팔로워십으로 구성됐다. 총무행정 뿐만 아니라 종단 역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꾸러진 점이 특징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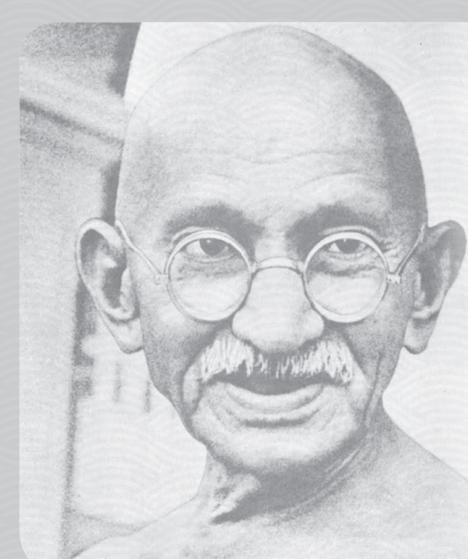
연화정, 보이차 300편 ‘보시’ 전국 복지시설 다도체험 사용

보이차 전문점을 운영하는 왕창일(사진) 연화정 대표가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650만 원 상당의 보이차 300편을 보시했다. 보이차는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전국 복지시설에 전달돼 노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쓰인다.



연화정이 보이차를 보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지금까지 보시한 보이차 금액만 해도 4750여 만 원 상당에 이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왕 대표에게 단주를 직접 걸어주며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2016년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전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전

간디의 삶과 사상으로 보는 우리시대 화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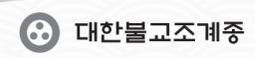
—
간디
Gandhi, Mohandas Karamchand
인도의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 영국에서 변호사가 된 후 남아프리카로 건너간 그는 인도인 인종차별에 대해 비폭력 저항운동을 일으켰다.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주 관 : 화쟁위원회, 불교신문, BBS불교방송, BTN불교TV, 법보신문

공모대상 :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접수기간 : 8월 22일(월) - 9월 12일(월) 입상자 발표 : 9월 28일(수)

문의 : 02-2011-1926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